

◆ KOEMA 消息 ◆

'96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 성황리에 폐막

— 총 관람객 3만명, 상담실적 8천만\$ 성과 —

'96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(SIEF'96)이 지난 5월 20일 부터 24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에서 국내외 14개국 102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열려 총 관람객 3만여명에 상담실적 8천만\$의 성과를 올리며 성황리에 끝났다.

통상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전기공업진흥회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한국종합전시장이 공동 주관한 이번 전시회에는 효성중공업, 현대중공업, LG산전 등 국내 주요 중전기업체 및 단체 73개사를 비롯, 미국, 일본, 독일, 프랑스, 영국 등 해외 13개국 29개사가 대거 참가하여 국내외 첨단 전기공업 제품과 최근 개발한 신기술을 선보였다. 국내외 제품의 비교전시를 통한 신제품 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수입개방에 대비한 국산제품의 인식 제고와 국제화를 유도하며 수출상담을 통한 수출촉진 및 수출선다변화를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전시회에는 총 전시면적만도 7,488 평방미터에 중전기, 전선, 용접 등 전기공업 전반에 걸친 제품들이 총망라 출품됨으로써 평소 전기공업에 관심있는 관람객들에게 우리나라 전기공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.

이번 전시기간 동안에는 국내 전기공업 종사자 및 수요자, 외국바이어 등 3만여명의 관람객이 몰려 전문 전시회로서는 대성황을 이뤘으며 특히 동남아, 일본,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외국 바이어도 28개국에서 300여명이 전시회를 관람, 수출상담 실적만도 총 8천만\$ 이상의 실적을 올렸다.

특히,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외국바이어들에게 우리제품의 우수성을 과시하고 평가받게 됨으로써 향후 수출시장 확대 및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되기도 하였다.

이번 전시기간 동안에는 부대행사로 “제2회 전기신기술 발표회”가 동시에 열려 산·학·연이 이미 연구개발하여 상품화 하였거나 현재 연구중인 미래기술 및 정책과제등 총 9개 과제가 발표되어 참가자들로 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21세기 우리나라 중전산업의 기술수준 및 기술방향을 가늠해 보는 뜻있는 행사가 되었다.

한편,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이번 전시회가 성황리에 끝남에 따라 '98년 제3회 전시회에는 외국업체 및 바이어 유치를 더욱 확대하고 국내업체의 참여도를 높여 명실상부한 중전기 국제전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.